

# 청년·산업·대학 잇는 광주 라이즈 성과 ‘한자리’

5~6일 김대중센터서 제1회 성과공유회 ‘G-라이즈 페스타’  
17개 대학 참여…AI·모빌리티·문화콘텐츠 인재양성 과시

광주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다.

광주시는 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제1회 광주라이즈 성과공유회 ‘지(G)-라이즈 페스타’(RISE FESTA)’를 개최한다.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라이즈센터와 지역 17개 대학 라이즈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다.

대학·기업·기관·학생·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된 광주라이즈 사업의 성과를 대학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으로 시민에게 공유하고, 청년 정주와 지역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광주시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실증,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대학-기업 협업 기반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와 기술 실증 과제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실습·실증 중심의 사업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라이즈 인재양성 시

그니쳐 과제인 ‘광주형 로컬 커스터마이징



개발 성과가 전시된다.

조선이공대학교는 전기차(EV)·하이브리드 전기차(HEV) 고전압 시스템을 가상현실(VR)로 구현한 교육 콘텐츠를, 동강대학교는 인공지능(AI) 융합 드론 실물 전시와 조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연계형 예비인재양성 사업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서영대학교의 고교생 대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소개한다.

산학협력 대표 과제인 ‘연구 개발(R&D) 기반 혁신실증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전남대학교의 기업 기술 실증 사례와 조선대학교의 특수차량 부품 시제품 제작 성과가 공개된다. 광주여자대학교는 뷰티·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실증 성과를 선보인다.

또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 활성화’

과제에서는 광주보건대학교와 호남신학대학교의 지역 상생모델 성과가 전시되며, 송원대학교와 기독간호대학교도 성과 영상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즈 추진 성과를 소개한다.

광주교육대학교와 남부대학교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개발한 늘봄학교 교재와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행사장에는 시민과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8개 체험존도 운영된다. 전남대학교의 생상형 인공지능 로고 스템프(GenAI LOGO STAMP) 체험을 비롯해 조선대학교의 키링 만들기, 남부대학교의 음악 줄넘기 체험, 광주여자대학교의 양궁·어린이 파크골프 체험,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의 가상 현실 지게차 체험 등이 마련된다.

부대행사는 5일 오후 1시30분 이병현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의 ‘5극·3특 균형정책과 인재양성 전략’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에는 과학 유튜버 쿠도의 초청강연이 이어진다. 6일에는 대학별 라이즈 우수성과 발표와 정책포럼,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개막식 참석자 또는 행사장 스템프 어워드를 대상으로 총 5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며, 추첨은 6일 폐막식 종료 직후 현장에서 이뤄진다.

장기정 시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광주 라이즈 성과공유회는 대학의 라이즈 사업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하는 광주형 지역혁신 모델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광주를 만들어 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어르신 정성 깃든 설 선물 구매하세요”

전남도, 남도장터서 은빛장터 운영…최대 30% 할인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어르신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은빛장터’ 할인 기획전을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추진한다.

은빛장터는 노인 일자리 35개 공동체 사업단에서 어르신이 직접 생산·가공한 생활용품을 온라인·오프라인 판매·홍보를 지원해 노인 일자리 생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은빛장터(<https://url.kr/6t1i6v>)에서 김 3만5000원에서 2만5000원 등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 농협하나로마트, 설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16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인기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상품까지 가격대를 폭넓게 구성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증시 머니무브에 3%대 특판 금리 이벤트

광주은행,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출시…최고 연 3.01%

증시로 자금 쓸림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3%대 특판 예금을 선보였다.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고 연 3.01%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디지털예금 특판 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12일까지 총 3000억 원으로 운영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1·2금융권 할인 없이 3%대 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

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2%대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은행체 금리 하락에 따라 잇따라 예금 금리를 인하한 결과다.

반면 증시로는 머니 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코스피가 5300선을 터치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특판예금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신규입(신규일 포함)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광주은행 정기예금 저축금이 이력이 없는 개인 고객에 한한다.

상품 가입은 ‘광주와뱅크’ 앱과 모바일 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www.kjbank.com](http://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디지털 금융 상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경쟁력 있는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은행, 한마음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원

기소유예 청소년 등 학업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지훈 광주은행 영업1본부 부행장과 김종우 광주지방법원 청사장과 한상원 광주한마음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경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과 생계가 어려운 모범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율리 복합이탈주민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지원



금액은 총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광주은행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재) 광주한마음장학회를 통해 지금까지 4800여 명의 지역 장학생에게 누적 4억 3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희망이 꽂피는 공부방’(현재 177호점), ‘희망이 꽂피는 꿈나무’(현재 14호점), ‘희망이 꽂피는 봉사단’(3기) 등 다

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강지훈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개혁위, 지배구조 전면 개편 2차 회의 열고 개혁안 본격 논의

농협의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위원회가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주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가능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선거제도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위원회가 사전에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전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원·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직선제와 협동제 등 제도별 정단점과 이에 따른 보완책을 짚증 논의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 과제로는 조합 무이자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공의사업회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안도 논의됐다.

공의사업회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주는 회계 제도다.

이와 함께 관행으로 지적돼온 퇴직자 재취업 문제 역시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협 전남본부, 설 성수기 배 출하 현장 점검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서 시세·산지동향 파악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농산물 출하작업이 한창인 농협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선별장을 찾아 과일 시세와 산지 동향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설 특수에도 불구하고 배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 농협 전남본부 배 취급 물량의 약 86%에 해당하는 1만9000t(697억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왕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설 대목을 맞아 전남 특산물인 배를 비롯한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만전을 기해 달라”며 “명절 감사 선물은 전남농협 농특산물을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